

# 대구광역시

## 道, 예산 12조원 목표... 국비확보 '총력戰'

캠핑 현판식 열고 신속 대응 시군 국회 방문 지원 등 대처 예산 심사 일정 함께 소화 "모든 네트워크 동원 대응"



경북도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임종득 국회의원에서 국비 캠핑 현판식을 열고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국비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비 캠프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상임위·예결위 자료 제공, 동향 파악, 및 시군 국회 방문 지원 등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는 날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부처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 소위 등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맞춤형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목표를 사상 첫 12조원 시대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의제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임종득 국회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사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미래 발전에 기여할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마지막 총력을 다할 때인 만큼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국회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칠곡군서 '할매래퍼그룹들' 이색 배틀 눈길

'수니와칠공주' '텃밭 왕언니' 공연 '점오골목축제' 정상급 래퍼 초대

할매골풀과 할매래퍼를 배출하는 등 실버 문화를 선도하는 경북 칠곡군에서 할매래퍼그룹들의 이색 배틀 대회를 개최했다.

주인공은 주요 외신인 K-할매래퍼 주목한 수니와칠공주와 지난 3월 창단한 신생 할매래퍼그룹 텃밭 왕언니다.

할매래퍼그룹의 진검승부는 칠곡군이 내달 2일 왜관읍 1.5만 도로서 왜관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점오골목 축제를 통해 선보인다.

이날 왜관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흥회와 할매래퍼그룹 맞대결은 물론 슬리피·조광일·쿤타 등의 국내 정상급 래퍼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는 등 10대부터 80대까지 함께하는 랩의 향연

이 펼쳐진다. 도전장을 내민 것은 왜관 3·4리에 사는 평균연령 82세의 8인조 할매래퍼그룹 텃밭 왕언니다.

지천면 신리 할머니로 구성된 수니와칠공주로부터 자극받아 활동을 시작한 텃밭 왕언니는 칠곡군 중심인 왜관읍민으로서 면민한테 질 수 없다는 각오다.

리더 성추자(82) 할머니는 "왜관읍을 주름잡던 왕언니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번 대회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열리는 만큼 몰라선 수 없다"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멤버를 하늘로 떠난 보낸 아픔을 극복하고 활동을 재개한 수니와칠공주는 풍부한 무대 경험을 내세우며 텃밭 왕언니의 도전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리더 박점순(84) 할머니는 "뼈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조용히 결과로 증명할 것"이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할머니들의 대결만큼 랩을 지도하는 부부간의 맞대결도 관심을 끈다.

수니와칠공주 랩 선생 정우정(53) 씨와 텃밭 왕언니 할머니에게 랩을 가르치는 김홍태(54) 씨는 부부사이다.

정 씨는 "보안 유지와 대회 집중을 위해 지난달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다"라며 귀띔했다.

일대일 대결에 이어 그룹 간의 맞대결 순으로 진행되며, 일대일 대결은 심사위원이 선정한 단어를 제시하면 리더는 즉석에서 랩을 선보이는 방식이다.

심사는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정상급 래퍼들이 맡고 우승팀에게는 쇼미더 랩 매가 새겨진 모자가 주어진다.

김재욱 군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세대가 랩으로 하나 되는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라며 "점오골목에서 할머니들의 열정과 젊음의 열기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태용 기자

### 순종의 행차 때... 대구는 어떤 모습일까?

순종 황제 대구 행차 관련 전시 이미지·실물자료 20여점 소개

대구근대역사관은 '1909년 순종 황제의 대구 행차와 대구 사회'를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구근대역사관 1층 '대구 근대여행 길잡이방'에서 전시한다.

대구근대역사관은 근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의 변화상과 그 성격을 조명하는 기획전시와 교육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대구 역사 속의 주요 사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09년(음력 3년) 1월 대구를 방문했던 순종 황제에 대해 주목한다.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의 아픈 역사이지만 한겨울에 행해진 순종의 순행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시기 대구의 분위기는 어땠으며 대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전시를 기획했다.

1909년 순종은 경부선을 따라 부산으로 향하던 1월 7일-8일 대구에 행차했으며 마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12-13일 다시 대구를 방문했다.

전시에서는 순종 행차 당시 대구의 모습과 행차 이후 대구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며 이미지와 실물자료 20여점을 소개하고 있다.

1909년 1월 7일 순종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에는 3만여명이 모였고, 수창학교(현 대구수창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종이 군함에 태워져 일본으로 갈려갈 수도 있다고 여겨 이를 저지하고자 철로에 누워 순종의 행차를 막으려 했다.

같은 해 1월 12일에 순종은 요배전이 건립돼 있던 달성공원을 찾아 학생들의 운동회와 무용 등을 관람하고 공원의 언덕을 거닐며 도심을 바라보았다. 순종의 대구 행차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2번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

순종은 대구에서 지방 교육 장려와 행정에 사용할 목적의 하사금을 내렸다. 그 하사금 일부는 은사관(恩賜館) 건립에 사용됐다. 순종 행차 이후 대구에는 이를 기념해 어행정(御幸町)이란 지명과 어행교(御幸橋) 명칭이 생겼다.

신형석 대구문화예술평론 박물관 운영본부장은 "대구근대역사관은 대구를 찾은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대구 역사의 일면을 살펴보고 있다"며 "1909년 순종의 행차도 당시 대구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은 30일 남부동 일원에서 열리는 남부동 한마음 걷기 대회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9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 DGB, 일정 比 자사주 소각... 기업가치 제추진

2027년까지 약 1500억원 수준 단계적 자본비용 개선 실행 방침

DGB금융그룹은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주가 개선을 추진, 주주환원을 제고해 나간다. 이번 밸류업 공시를 통해 창사 이래 최초로 오는 2027년까지 약 1500억원 수준

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밝혔으며 밸류업 핵심지표 목표치를 수익성(ROE) 9%, 자본비용(CET-1비율) 12.3%, 주주환원율(TSR) 40% 달성으로 제시했다.

DGB금융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i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그룹 성장 발판을 마련한 만큼 자본적정성에 기반하는 내실 성장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단계적인 자본비용 개선과 주주환원을 확대를 실행한

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적정규모 성장과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자본의 효율적 운용, 채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3년 이내 ROE 9% 이상 달성을 신종자본증권 영향을 제외한 실제 주주자본에 대한 수익률(ROCE)은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또 신뢰성 있고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비용 구간을 축소하고 구간별 주주환원율을 확대한다.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들 결으로!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도민이 행복한 세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도민 행복**

-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정을 만듭니다.
-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삶의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펴봅니다.
-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2

## 서구 주민, 군위읍 독거노인 식품 후원

홍가네 가마솥 닭강정은 지난 28일 군위읍 5 일장에서 독거노인과 취약아동 20가구에 닭 강정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홍덕기씨는 평소에도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판매하는 닭강정을 후원하고자 했으나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지인의 추천

으로 군위읍사무소와 연계해 이번 후원을 하게 되었다.

홍덕기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군위읍을 시작으로 방문하는 다른 지역 5일장에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차량기지 통합이전… 도시공간 혁신 추진”

1호선 달성군 제2국가산단 연장 월배·안심 차량기지 달성군 내로 통합 이전 등 민자사업 참여의향서 접수돼 추진

대구광역시시는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 제2 국가산단까지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고, 월배·안심 차량기지를 달성군 내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민자사업 참여의향서가 접수돼 사업추진에 나선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의 내구연한(40년)이 도래하고 월배·안심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차량기지 이전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었고, 최근 2개 민간 컨소시엄사로부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담긴 민간투자사업(BTL) 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철도와 차량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교통공사에 의향서 검토를 의뢰한 것이다.

대구시는 월배·안심 차량기지 통합이전에 대해 달성군에서도 긍정적인 제안 요청이 있었으며,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도시철도 연장사

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달성군 옥포읍 일대에 제2국가산단 조성과의 연계 차량기지 통합이전을 준비하고, 제2국가산단에 도시철도를 연결해 접근 교통망을 확충하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1호선은 국가산단이라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수립 중인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국가산단으로의 연장노선 포함을 검토 중이며,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서 접수절차를 마친 후,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관련 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자격성조사와 제3차 제안서 공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차량기지 통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성군으로의 차량기지 통합이전을 통해 월배와 안심지역에 새로운 도시공간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기지 이전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대구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남구 구민 평생학습 즐거움 느낄 수 있기를”

남구 평생학습 나눔 FESTA 개최 20개 체험 부스서 다양한 행사

대구 남구는 지난 26일 토요일 명덕역 물베기 거리 일원에서 '제3회 남구 평생학습 나눔 FESTA'를 개최하였다.

명덕역 물베기 거리·코스튬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남구'라는 주제로 관내 평생교육기관, 우수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수강생 및 강사 등이 참여해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20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자개공예 체험, 친환경 차치약 만들기, VR체험 및 3D홀로그램 키트 만들기, 섬유항수 만들기 등 참여자가 직접 보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남구 평생학습관 우수 동아리인 오카리나, 하모니카, 라인댄스팀이 구슬땀을 흘리며 기쁨을 화려하게 선보였으며, 공연을 관람한 한 주민은 “나도 수강하고 싶은데 어딜가면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평생학습관 수강유도까지 이어졌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관 문해학당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의 애환과 진심어린 이야기로 채워진 '성인문해 사회란', '추억의 인형뽑기',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바란다' 소감 메시지 남기기, '청년 상생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 구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2024 대구여성영화제 총 21편 영화 상영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주최 관객과 대화·기획 토크 진행

계명대 여성학연구소가 주최하는 2024 대구여성영화제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메가박스 대구프리미엄 만경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좌석권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이번 영화제는 총 21편의 영화 상영, 관객과의 대화, 기획 토크,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공동 기획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째 날인 10월 31일에는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주제로 영화 (바로 지금 여기) 상영과 토크가 진행된다. 폐막작으로는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여성 90%가 일과 가사, 육아를 전담했던 사건을 다룬 아이슬란드 가부장제 날이 상영될 예정이다.

11월 1일(금)에는 대구KBS 다큐멘터리 장녀들: K-장녀 연대기가 상영되며, 작품의 PD와 작가가 참여하는 씨네토크가 이어진다. 두 번째 기획 토크에서는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회장이자 대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인 심영섭 교수가 친밀한 관계 안의 폭력을 마주했을 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영화제는 (주)지원의 임현정 대표가 메가박스 대구프리미엄 만경관을 무료로 후원하는 등 지역 업체, 단체, 시민들의 힘으로 개최된다. 안숙영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장 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다양성 속의 연결과 연대'이다”며,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만나고, 여성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힘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달서구, 결혼문화 확산… 커플매니저 양성

결혼 관심 지역주민 40명 각 회차별 전문 강사 진행

달서구가 지난 25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긍정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인 '커플매니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커플매니저 양성과정'은 청년들을 만났에서 결혼까지 이어주고, 결혼에 대한 보다 건강한 가치를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청년의 결혼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4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해 결혼을 축하하고 꽃피우는 사랑의 오작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화관과 포포니스를 펼쳤다.

교육은 4주 과정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총 4회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커플매니저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마케팅 전략과 활용, 스피칭 기법의 이해 등 커플매니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 배경지식으로 구성했으며 각



회차별 전문 강사가 진행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인식개선 교육 등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달서구는 혼인율 증가 전국 26배라는 결실을 맺었다. 달서구의 '젊은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대한민국의 미래에 의미있는 족적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기쁨'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구석구석 95%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95%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2023년 모금금액 **8,305억**원

2023년 지원금액 **7,446억**원

지역	1,719	1,010	486	379	1,787	1,792	273
사업 분야	3,882	939	615	450	382	755	240
							183

해당 지원내역은 2023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부금입니다. 지난해 7,446억 원으로 전국 3만 개 기관과 함께 43만 명의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 예천군, 고 이재성 지사 유족 표창 전수

예천군은 29일 오전 10시 국가보훈부 경북북부보훈지청과 함께 예천군 지보면에 거주하는 고 이재성 지사의 유족 권민자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고 이재성 지사는 1919년 4월 11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항일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202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그러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전수가 지연됐

다가 지난 9월 '제68차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외손인 권민자 씨가 후손으로 인정돼 이번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김학동 군수는 독립유공자 고 이재성 지사 유족대를 방문해 표창 전수와 함께 독립운동 공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 국내복귀... (주)화신, 영천에 후 생산시설 준공

자동차 경량화·전기차 부품 시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준공 2023년도 국내 복귀 유공자 표창 현대차 전기차 모델 부품 생산

(주)화신이 국내복귀지원제도를 통해 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 11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2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곡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최기문 영천시장, 윤승오 경북도의원,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및 컷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주)화신은 2015년 완성차 제조사 등의 부품 조달을 위해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沧州市)로 진출하였으나, 협력업체 사업축소와 현지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국내 복귀한 기업으로 2023년부터 800억을 투자해 자동차 경량화 및 전기차 부품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주)화신은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베트남의 주요 거점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사업장을 2023년 3월 착공 후 약 11개월 만에 조기 준공했다.

(주)화신의 영천 신공장은 올해 7월부터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케이스(BPC) 양산을 시작했고 특히, 현대차 전기차 모델의 인가차종인 개

스퍼 EV 부품을 생산하고 국가지원 사업인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미래차 배터리시스템 핵심부품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의 성장도 주목된다.

(주)화신은 1990년도 영천시 언하공장 준공 후 영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자동차 새시(Chassis) 및 차체 전문 생산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 뿌리산업 유공 표창 및 2022년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주)화신의 정세진 대표는 중국 창저우시 법인을 청산하고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자동차 경량화 및 전기차 부품 생산시설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도 국내 복귀 유공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복귀 기업으로 23개 기업이 선정되어 기업 입지 여건이 좋은 경기지역과 같은 전국 최다 선정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8281억원의 투자 유치와 13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양곡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주)화신의 하이테크파크공장 준공은 경북의 대표적인 국내 복귀 기업 성공 사례로, 주력산업인 미래차 산업 육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자동차 업종의 국내 복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대구-광주 지방시대위원회 교류사업 추진

기업유치 사례 벤치마킹 기회 "수도권 일극화 대응·협력 강화"

대구시는 양 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연대협력 강화를 위해 '대구-광주 지방시대위원회 교류사업'을 29일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추진한다.

행사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이병택)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특강, 기회발전특구 견학 및 간송미술관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자치분권을 주제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우영 교수가 진행하며, 위원들은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분산하기 위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할 예정이다.

특강에 이어 수성알파시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과 입주업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SK C&C와 DIGST 등이 들어설 예정 부지도 돌아보며 특구를 지역의 혁신 성장과 도약

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디지털 산업서비스 중심 수성알파시티는 대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1호로 신청·지정된 기회발전특구로 지난 7월 모델리더, AI중심으로 특구신청을 하고 지정을 기다리는 광주광역시에 기업유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도시 지방시대위원들은 올해 9월 개관한 대구간송미술관도 방문해 미인도, 훈민정음해례본 등 다양한 국보와 보물들을 둘러보며 국기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황태용 기자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 개최

전국 17개 시도서 총 97개 팀 10가지 체험 부스 등 학생 호응

경북교육청은 25~28일까지 상주실내체육관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농구협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7개 팀(남초 16, 여초 17, 남중 17, 여중 17, 남고 17, 여고 13) 1,250여 명의 학생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농구를 통해 우정을 나누며 꿈을 키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4일간 진행된 경기는 초·중·고 남·녀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최종 우승은 남초부 제주인화초등학교와 여초부 충남 온양동신초등학교, 남중

부에서는 경기 시곡중학교, 여중부는 서울 구일중학교, 남고부는 경기 대광고등학교, 여고부는 경기 고촌고등학교가 차지했다.

페어플레이상은 울산 화진초등학교와 강원 무실초등학교, 전북 전주중앙중학교, 서울 구일중학교, 제주 오현고등학교, 부산 성모여자고등학교가 수상했다.

경북교육청은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위해 경기장마다 운영요원을 4명씩을 배치했으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출력해 출전팀에게 제공하며 농구 축전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주경기장인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한 △농구 슛 게임기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보틀만들기 △아크릴무드등 △풍선아트 등 10가지 체험 부스는 출전 학생은 물론 응원 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황태용 기자

## '남작복숭아' 신제품 명품화 사업 추진 협약

도농기원, 기술 지원 매뉴얼 개발 특화단지 운영·브랜드화 추진 방침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청도군과 경북 복숭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5일 청도군청에서 '남작복숭아 신제품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남작복숭아 신제품의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지역 대표 명품 브랜드화로 복숭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

성한 남작복숭아 신제품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청도군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고품질과 실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신제품의 농가 보급 확대와 정착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 특화단지 운영, 브랜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최근 MZ세대가 선호하는 남작복숭아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맛과 향이 풍부한 조생종 백옥계 남작복숭아를 국내 최초 개발했다. 이 신제품은 속기가 7월 중순으로 과중 150~190g, 당도 12브릭스, 열과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앞두고 있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내수 및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17개의 복숭아 신제품을 개발했으며, 1천257ha(전국 재배면적의 6.2%)의 농가에 보급했다.

조여은 기자

Advertisement for 'Beautiful Ulsan' featuring a scenic view of the coast with a train and a boat. Text includes '2022-2023 울진방문의해', '이토록 아름다운 울진', 'Beautiful ULSAN', '울진으로 그대나', and '울진군 관광안내 | 054-789-6900-3'.

### 포항 경주 영덕 올진 청송 올름



올진 우수봉사자 견학 활동

올진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2박 3일 일정의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에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 34명의 자긍심 고취와 자기진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주도 주요 지역을 탐방하며 자연을 만끽하였고, 국립제주호국원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을 참배하고 모여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 전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참석자 자원봉사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올진군수는 "자원봉사를 통해 올진군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여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영덕복지재단 가족 캠프 진행

영덕복지재단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함께해서 행복한 가족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가정에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의 피로를 씻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덕복지재단의 '가족여행 지원 사업'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중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수기공모전을 제출하여 신청을 받고 심의를 통해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선정된 가정에 가족여행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내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올해 2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인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기획하게 되었다.

참여한 가족들은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사려니숲길, 천지연폭포 등 자연경관을 만끽하고 갈매채림, 아쿠아플라넷, 항공우주박물관, 요트투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듬뿍 담을 수 있는 일정으로 가득 채웠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설레여하는 자녀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들어 울컥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여유가 없는 일상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고고마음마음을 드러냈다.

#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영덕 함께 만들 것”

2024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총 427명 주민 참여 거리 퍼레이드 11월 3일까지 9일간 영덕읍 일원

영덕군은 지난 26일, 주민이 주도하고 완성하는 참여형 축제 2024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의 성대한 막을 올렸다.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본 행사는 영덕교육지원청을 출발해 덕곡천 메인 무대까지 40여 분간 이어진 거리퍼포먼스 선라이즈 퍼레이드를 신화탄으로 9일간의 축제 서막을 알렸다.

총 427명 주민들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는 대형 깃발을 앞세운 영덕군 9개 읍면 대표 풍물단과 군악대가 선두에 서고 가지각색 분장을 한 어린이집, 아동센터, 생활문화동호회 등 16개 단체가 총출동, 유쾌한 퍼포먼스를 벌이며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퍼레이드를 마친 참가자들과 관객, 500여 명은 덕곡천 메인 무대에 집결했고 박형수 국회의원,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 김성호 군의회 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덕군 생활문화 조례에 관한 선포식도 열었다.

생활문화 조례는 2023년 기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75개 지자체가 제정한 것으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간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공모사업을 통해 2022년 38개(272명), 2023년 41개(457명), 2024년 42개(404명)의 생활문화동호회(신규 포함)를 지원 육성해 왔다. 이렇게 축적된 기반을 토대로 영덕의 생활문화동호회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고 주민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도 높아진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정된



영덕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로서 향후 영덕군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에 고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선포식은 군민과 내빈이 합심한 박터트리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고 이어 DJ가 진행한 랜덤 플레이 댄스, 꿈의무용단 공연이 열려 열기를 이어갔다.

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 영덕군의 한 주민은 "영덕읍과 덕곡천에 이렇게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즐긴 것도 드문 일"이라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펼쳐 보람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선포식에 참가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활력을 이끄는 생활문화동호회 분들과 아동, 청소년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즐거웠다. 영덕군 생활문화 조례는 군민 여러분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이다.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영덕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2024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는 개막 행사 외에도 11월 3일까지 영덕읍 덕곡천 야외에서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친환경 체험 행사, 마술 공연이 매일 펼쳐진다. 저녁 6시부터는 영덕생활문화축제 우다다다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생활문화동호회들의 공연과 정수연, 박해미, 박창근 등 유명 초대가수의 무대가 요일별 다른 테마로 열리고 있다. 또한 덕곡천 현장에는 1회용품 쓰지 않는 푸드트럭과 아나바다 나눔장터 바다마켓도 개장해서 쓸쓸한 즐거움을 준다.

10월 26일 시작된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는 11월 3일까지 9일간 매일 영덕읍 덕곡천 일원(덕곡길 약 200미터)에서 펼쳐지며,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ydc.org>) 또는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홈페이지(<https://www.yuaf.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정부 예산 미반영 APEC 관련사업 국비 요청

경주시장, 예산결산특위 위원 만나 18개 지역 핵심 사업 등 건의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은 서일준(경남 거제), 임미애(비례 대표), 조승환(부산 중구 영도), 김승수(대구 북구 을),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을 차례로 만나 APEC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주 시장은 10층 높이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을 오르내리며 의원들 만나기 위한 강행군을 펼쳐야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4건과 경주읍성 복원 등 18개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868억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125억원 △APEC 문화동행 축제 개최 50억원 △속박시설 정비 100억원 △APEC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108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경주읍성 정비·복원 42억원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개발 15억원 △양동마을 정비 14억원 △강동-안강 국지도 건설 52억원 △양남-문무대왕 국도 건설 45억원 △양남-감포 간 국도 2차로 개량 29억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29억원 △환경교육센터 조성 23억원 등도 추가적인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주 시장은 국제 감소로 인한 교부세 축소에 대응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신규 사업 예산도 건의했다. △미래차편의 안전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15억원 △입자법 실증센터 구축 30억원 △선부역사교



육원 건립 2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방사선 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40억원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체험관 건립 5억원 등의 사업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주낙영 시장은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과 함께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을 만나 경주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 예산 확정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 청송사과축제 11월 3일까지 축제 연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청송문화원 주최 문화제 시작

가을축제의 백미 청송사과축제가 10월 30일 청송읍 월마리 용전천(현비암 앞) 일대에서 막을 올린다.

오는 11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청송 사과,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12년 연속 수상한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과 가공품과 요리를 통해 청송사과의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청송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7회 청송문화제'가 열린다.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청송문화제 개막식', '소현왕후 추모 헌다례'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저녁에는 가수 이찬원, 진해성, 송실장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청송사과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청송사과와 유서 깊은 청송의 전통문화를 느껴보길 바란다"며, "깊어가는 가을, 많은 분들이 축제에 함께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울릉군 힐링원예프로그램 마무리

울릉군은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 총 10회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힐링원예프로그램 교육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25일 "울릉군민의 날과 독도의 날" 맞아 도동해

변공원에서 회원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시한 작품들은 다육식물, 온열대식물, 반려식물, 선인장류, 국화류 등을 소재로 20명의 교육생들이 직접 만들어 작품을 출품하였는데,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도 독도모형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울릉군과 독도의 날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전시장에 참석한 A씨는 "반려식물 만들기 및 다양한 원예프로그램 운영은 군민들의 심적 치유 및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본인도 교육에 참가하여 힐링원예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남관권 군수는 "이번 힐링원예프로그램 운영을 계기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원예활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심신 치유와 밝고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은환 기자

## '외씨버선길 청송 함께 걷기' 행사

청송군은 내달 2일 오전 9시 청송사과축제가 개최되는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2024년 외씨버선길 청송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씨버선길은 총 246km(청송구간 45.6km)로 조성돼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을 연결한 길로, 4색(色) 길이 합쳐지면 시인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외씨버선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번 걷기행사는 외씨버선길 청송구간 중 슬로시티길(12.6km)로 숲코스는 소헌공원에서 송소고택까지, 풀코스는 소헌공원에서 송소고택을 거쳐 산소카페 청송정원까지 이어진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제18회 청송사과축제와 연계해 만유인력 - 황금사과를 찾아라, 도전-사과선별로포, 꿀잼-사과난타 등 청송사과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체험과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청송사과 전시 및 판매, 각종 연계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을 준비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될 예정이다.

현재 외씨버선길 누리집([www.beosun.com](http://www.beosun.com))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톱코스와 숲코스 구간 선택이 가능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으로 각 코스 완주 시 완주기념품인 청송사과(2개), 청송사과 마스크팩(1개)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걷기행사를 청송사과축제와 연계해 외씨버선길뿐만 아니라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 자연과,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전국 최고의 청송사과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작지만 강한 글로컬 생태 관광도시" 청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경산시, 인력 양성 협약

경산시와 영남사이버대학교가 28일 관·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남사이버대학교는 경산시민과 시 소속 공직자(공무직 포함),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149개 강좌의 수업료를 50%(입학금 제외) 감면한다.

경산시는 대학의 장학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산시민과 공직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의 학습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시 서부동, 연탄나눔

영천시 서부동 선화여고 1학년 1반 한지민, 김세연 학생과 2반 박수빈 학생은 지난 26일 따뜻한 연탄배달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나눴다.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서부동 관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연탄 2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연탄 나눔 수혜를 받은 어르신은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고되고 피곤했지만 지나가는 주민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친구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성주국민체육센터 군민과 새롭게 소통”

하루 평균 이용객 800~1000명  
노후 된 수영장 천장 개보수와  
남·여 샤워실 미끄럼 방지 공사



요즘은 100세 시대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이 남녀노소 모두의 바람이기에 건강 관리에 필수 요소인 체육 시설의 수요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성주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7월 완공 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800~1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주관내에서 가장 인기 높은 공공체육시설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성주군민에게 에너지 넘치는 건강과 함께 일상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복 출발점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공간이다.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성주국민체육센터로 출근 도장을 찍는 성주읍 거주 A씨는 "하루의 시작을 건강한 운동으로 할 수 있어서 체력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같이 운동했던 분들과 시설 내 휴게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큰 기쁨이자 하루의 소소하고 소중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성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아쿠아로빅 강습·어린이 수영·헬스·GX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회원들에게 최적화된 전문 강사의 열의 넘치는 강습 지도로 스포츠 행정 중심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아쿠아로빅 강습의 경우 노인과 여성들의 관절 건강 증진에 대한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져 회원 모집 시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태이다.

수영장에서는 매일 기본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여과기 청소, 배관 이물질 청소 등의 수질관리로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2차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는 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도재훈 기자

## 칠곡, 다부리 평화 문화 플랫폼 조성 선정

전적기념관 방문객 대상  
마을 역사 전시·상품 판매

칠곡군은 지난해 2월 가산면 다부리 일원에 다부리 평화문화플랫폼 공간조성사업을 경상북도에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농식품부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225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0백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다부동전적기념관이 위치

한 다부리 마을공동작업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전적기념관 방문객 대상의 평화소반(F&B)판매 공간 및 6.25 전쟁관련 마을역사 해설운영, 지역 청년들과 연계한 마을 역사 전시 및 개발상품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금년 선정된 다부리 평화문화 플랫폼 공간조성사업은 주민들 및 방문객에게 6.25 전쟁 이후 고립된 역사문화, 예술, 자연, 사람, 마음을 연결한 문화 플랫폼으로 로컬브랜드 가치 및 지역문화에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사업은 내년에 시설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6년도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까지 칠곡군(군수 김재욱) 및 가산다부리동새마을회(이장 이동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사업이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고 호국의 도시로서 지역의 상징성을 한층 더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령, '개경포 음악회' 개최

고령군 개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개진면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제6회 개경포 음악회'를 10월 26일(토) 17:00 개경포기념공원에서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도의원 등 여러 내·외빈과 면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개경포 음악회는 개진동문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진면 주민공연(고고장구, 난타, 건강체조)과 초청 가수 최비송, 강야로, 단비 및 국악박제미 등의 공연으로 무대가 진행되었다. 매 무대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격려로 개진면 주민들이 하나된 축제의 장이 되었다.

배영백 기자

#### 경산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현안 187건과 신규사업 101건  
“추진 사업들 가시적 성과 노력”

경산시는 22-28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주재로 내년도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8만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산'을 목표로, 재정 건전성 유지 기초 아래 주요 현안 187건과 신규사업 101건 등 총 288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2025년 경산시를 이끌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새 대표 상징물(CI, 캐릭터)과 도시 브랜드(BD)를 연계해 미래 비전을 담은 통합 도시 브랜딩 시작과 대규모 주거단지인 대입지구에 입당 유니콘파크 조성 및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한 ICT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첨단 ECU 생태계 활성화로 지역 자동차 부품 생태계 전환 등 미래차 산업 허브로 도약, 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학교 복합시설 건립 등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추진 및 중축 고속화 도로 건설로 물류비 절감 및 기업 생산성 향상, 신체적 경관 개선, 대구권 건강 산책로, 은행나무 힐링 특화숲, 도심속 녹지 공간 조성 등이다.

#### 청도군, 임산부 가족 힐링캠프 성황리 마무리

가족 20가구 84명 대상 진행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서 행사

청도군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임산부 가족 20가구(84명)를 대상으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2024년 임산부 가족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힐링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엄마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퍼스널컬러체험, 노발란스를 통한 건강한 육아법 특강, 아빠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건강가족퀴즈, 가족사진 찍기, 빌런매직쇼, 보물찾기 등으로 특별한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이번 1박 2일간의 힐링 캠프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건강한 가족관 형성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국민간식 라면... '구미라면축제'로 즐기자



문경 농촌활성화센터 리더 교육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리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호계면 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리더의 역량강화 및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4회차로 전문가초청 교육 3회, 선진지마을 견학 1회로 운영된다.

지난 24일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 번째 교육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옥용 한국농어촌공사소속 전문위원과 함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1월 19일에 진행될 두 번째 교육은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쉽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상주박물관 박물관인상 수상

상주박물관은 지난 22일과 25일 '경상북도 혁신행정 경진대회 장려상'과 '(사)경상북도박물관협회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박물관인상(박물관 운영 분야)'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주박물관은 도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최로 개최한 경진대회에서 문화소멸의 시대에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 상생' 박물관에서 문화로 꽃피운다'사례로 혁신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 경상북도내 공립·사립·대학박물관으로 구성된 (사)경상북도박물관협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박물관인상(박물관 운영 분야)'을 받았다.

구미역 일원서 구미라면축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식품산업관광 새 모델 제시 라면레스토랑 대화용기 사용

세계인의 소울푸드이자 K-FOOD의 자부심인 한국 라면의 고장, 구미시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2024 구미라면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선보인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공장인 ㈜농심 구미공장에서 갓 튀겨낸 라면을 활용하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식품산업관광(FTT)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올해는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개최되어 콘텐츠를 고도화하였으며, 개최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날씨 변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관람객 편의를 고려한 행사장 연출과 완성도 높은 축제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F&B 축제분야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구미 대표 이색라면 셰프 15인과 전국의 이색라면 맛집 3곳이 참여해, 라면을 재해석한 창의적인 요리와 특별한 레시피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한다.

면, 스프, 토핑, 패키징까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나만의 라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라면을 주제로 한 음악, 스토리, 게임이 어우러진 'MSG팝업 무대'를 운영한다.

MZ세대의 감성을 담은 '뉴-타운 라면빠'는 구미대 외식업 창업동아리에서 이색 라면 안주를 개



발하여 축제장 내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11월 2일(토)과 11월 3일(일) 비보이 국가대표 흥텐, 스트리트댄서와 힙합의 허니제이와 윤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스트리트댄스경연의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축제는 구미역을 중심으로 금오산 일원과 구미시 전역으로 공간을 확대해 구미시 전체가 축제에 들쭉이게 된다. 특히, 낙동강 건너 진평음식 문화

보인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한다.

면, 스프, 토핑, 패키징까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나만의 라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라면을 주제로 한 음악, 스토리, 게임이 어우러진 'MSG팝업 무대'를 운영한다.

MZ세대의 감성을 담은 '뉴-타운 라면빠'는 구미대 외식업 창업동아리에서 이색 라면 안주를 개

발하여 축제장 내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11월 2일(토)과 11월 3일(일) 비보이 국가대표 흥텐, 스트리트댄서와 힙합의 허니제이와 윤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스트리트댄스경연의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축제는 구미역을 중심으로 금오산 일원과 구미시 전역으로 공간을 확대해 구미시 전체가 축제에 들쭉이게 된다. 특히, 낙동강 건너 진평음식 문화

특화거리에서는 20개의 참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 기간 동안 갓 튀긴 라면 요리를 제공한다.

축제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 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존의 몽골텐트 형태의 조리공간을 전문 셰프의 요리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관람객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준비한 셰프들의 요리솜씨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극장식당처럼 주문한 라면을 기다리고, 먹으면서 공연과 무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주문을 위해 대기시간 대기하는 시간도 최소화 되도록 공간을 구획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다.

구미라면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농심 구미공장은 연간 약 8,000억 원 규모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최근 2년간 400억 원의 추가 투자와 1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용기라면 생산라인 증설과 스낵류 묶음공장 가동라인 확충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 쓰레기 최소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모든 라면레스토랑에서는 대화용기를 사용한다. 탄소절감을 위한 셔틀서비스를 운영하고, QR코드 기반의 폐이퍼리스 정보 제공 시스템도 도입했다. 또, 축제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위해 사설경호 114명, 자원봉사자 347명, 경찰 215명을 배치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지킨다. 송병주 기자

의성군, 금성산 칼데라 지오하이킹 페스티벌

전국서 20~30대 7.5km 완주 조별 발표회 진행 지질공원 이해



의성군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2024 의성 금성산 칼데라 지오하이킹 페스티벌'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30대 청년 25명은 금성산 칼데라 7.5km 지오투레일을 전문 트레킹 가이드의 인솔하에 안전하게 완주하였다.

참가자들은 탐방로를 따라 이동하며 금성산의 지질학적 특징과 형성과정을 듣고 또한 동부권역 청년복합문화센터 '청춘어람'에서 '금성산 칼데라'를 주제로 조별 발표회를 진행하여 의성 국가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7천만 년 전 지질유산인 금성산 칼데라를 직접 걸으면서 의성의 독특한 지질자원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금성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질자원의 가치를 전국의 청년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의성의 독특한 지질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의성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의성군, '문학광장' 행사 개최

의성군은 의성도서관 배롱나무도서관이 주최하고 △단촌면 △경상북도교육청의성도서관 △한국문화분원연구소가 후원한 '제6회 김용락 시인과 함께하는 단촌역 은해나무 문학광장' 행사가 26일 단촌역 광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성군 단촌면 출생으로 1984년 등단하여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이하는 김용락 시인의 시와 단촌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작시, 의성에서 활동하는 향토문인들의 시 등을 낭송하여 문학적 감동을 선사했다.

'시, 노래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시를 노래로 표현하여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박재성 기자

새로운 한류 문경한지... BTN 불교TV 방영

문경한지 국가무형유산 전수자 전 공정 고려한지 전통 수공 제작

문경은 조선팔도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새재(국가 지정 명승)로 먼저 각인되는 곳이다. 길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다수 보유한 대표적 도시인데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함에 있어서도 원조를 자부하는 것들이 많다.

그중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문경한지이다. '견오백(絹五) 지천년(紙千年)-비단의 수명은 오백 년을 가지지만 한지의 수명은 천 년을 간다'

한지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 명실공히 문화유산 복원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이다. 문경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루브르박물관 공식 납품한지로서 그 우수성을 극찬받고 있는 문경한지의 제작현장이 삼식지소이다.

문경한지는 이곳에서 국가무형유산 김삼식 한지장과 김춘호 전수자에 의해 전 공정을 고려한지 전통 그대로 수공으로 제작된다.

종이 한 장 한 장 책임질 수 있는 한지만을 생산, 명품 종이로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경한지의 세계는 2024년 10월 31일(목) 07:30, 16:00, 11월 1일(금) 22:30 BTN 불교TV 특집다큐로 방영된다.

상주시 제작 지원 '소설 장군 정기룡' 출간

삼화 추가 등 소장용 편집·제작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필적 전공

상주시가 제작 지원한 하용준 소설가의 소설 정기룡(전3권)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쓴 소설 장군 정기룡의 전자책(ebook)이 출간됐다.

이번 전자책은 그동안 종이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삽화를 추가하는 등 소장용으로 편집·제작한 것이 특징이며 이달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등 시중 유명 인터넷 서점과 밀리의 서재 등 모든 전자책 서비스 업체를 통해 구입·구독할 수 있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필적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묻혀온 인물이다.

이에 중견작가 하용준 소설가가 정기룡 장군의 행적을 다년간 조사하고 고증한 끝에 대하소설로 엮어낸 바 있다.

이번 전자책 출간에 대해 하용준 작가는 "두 소설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다 출간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정기룡 장군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위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주시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 대한적십자 영주시, 성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 구협의회는 지난 28일, 관내 취약 계층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투게더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지원하는 물품으로, 희망투자 결연가구 50가구와 관내 취약계층 21가구 등 71가구에 위생용품(핸드워시, 위생장갑, 비닐팩, 고무장갑, 쿠킹호일, 각티슈)을 전달했으며, 취약계층 21가구에는 식품세트도 함께 전달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단산면 A모 씨는 "날이 쌀쌀해 지면서 장보기가 어려워 걱정이었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 물품을 전달해줘 고민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 NH 봉화군, 협쌀 613포 기탁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는 29일 봉화군청 잔디광장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협쌀 613포(약 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강훈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장을 비롯한 군·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된 물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후 관내 읍면의 저소득 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강훈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하반기 영주복지학당 개최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오후 2시,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시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영주복지학당'을 개최했다.

하반기 복지학당은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활동가와 주민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영주형 사회복지 학습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번 복지학당은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1강에서는 신고은 작가가 '지혜를 발견하는 끈대의 심리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 영양군, 스마트팜 기술 산소수 식물 재배기 도입

자동화된 시스템 성장 환경  
생산 신선 채소 직매장 거래  
소량이지만 연중 생산 가능

영양군은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산소수 식물 재배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개장한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출하차 및 출하 품목 확대, 제휴푸드 입점, 할인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들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더불어 지역농업의 특성상 채소류의 연중 공급이 어렵고, 최근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고민하던 중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산소수 식물 재배기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채소는 최첨단 재배시설에서 자라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성장 환경을 제공받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신선 채소는 겨울철 로컬푸드 직매장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친근함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식물 재배기의 도입은 소량이지만 연중 생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

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봉화, 국비 확보 총력... 국회서 역점 사업 지원 부탁

창평저수지 활용 호수가람관 사업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봉화군은 지난 10월 22일 중앙부처 방문과 23일 경북도지사 방문에 이어 28일 국회를 방문해 역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박현국 군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을 통해 봉화군 역점추진

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의 관광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구 임종득 의원을 찾아 △봉화 양수발전소 조기 착공 △남북 9축(영양-봉화) 고속도로 조기 건설 △주실령 터널(지방도 915호선) 설치공사 추진 등 2025년 봉화군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될 창평저수지를 활용한 호수가람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부

탁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우리군 핵심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가 對 국가의 문화관광협력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봉화 양수발전소 조기 착공,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도 봉화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개최 한다

무형유산 인문가치 재고 등 주제  
인문 가치 재고와 패러다임 논의

세계 유일의 탈 관련 유네스코 NGO 자문기구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양일간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테마파크에서 개최한다.

'무형유산의 인문가치 재고와 탈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안동총회는 약 20개국 500여 명의 탈 관련 국내외 학자를 비롯해 문화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탈 공연자, 일반시민 등이 참가해 탈 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한국의 탈춤에 대한 인문 가치 재고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인류사회에 보편적 인문 가치를 제시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인문의 가치와 탈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제17차 유네스코 정부간 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모두 보유한 안동시는, 탈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 문화를 인문 가치포럼 및 인문도시네트워크 창립총회와 연계 시킴으로써 '세계 탈 문화의 메카, 안동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탈 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한국의 탈춤'에 대한 인문 가치 재고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제안, 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성과 그 동향, 무형유산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효과와 발전 방향 등 4개의 분과세션이 진행된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탈 문화의 전승과 보전, 창의와 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연맹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후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무형유산네트워크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다자간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 예천, "남은 벼집 토양에 환원을"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고품질 쌀 생산과 깨시무늬병 및 벼 도복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벼 수확 후 남은 벼짚을 토양으로 환원시킬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벼 수확 후 벼짚을 눈에 환원하면 10a(300평)당 유기물 174kg, 요소 9.3kg, 용과린 28.5kg, 규산 252kg 등 토양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화학비료 구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원 정도 환산가치가 있어 벼짚을 조사료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다.

벼짚 환원은 논 토양 환경 개선과 지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벼 수확 시 콤팩트의 절단기를 이용해 3~4등분으로 잘라논에 간 뒤에 같이 밟으면 된다.

송명주 기자

### 영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공업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진

영주시는 29일 오후 1시, 시청 강당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 공업지역(총면적 145km<sup>2</sup>)에서 추진 중인 '영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관리주체와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산업경쟁력

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시는 2030년을 목표로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휴천1동, 적서동, 봉현면 오희리, 풍기읍 산변리 등 총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유치와 지역 특화산업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산업 유치와 지역 특화산업의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 국립안동대서 '2024 창업 경진대회' 개최

예선 후 본선 진출 21개팀 경연  
카페창업 분야 애플향카페 수상

안동시는 25일 국립안동대학교에서 '2024년 창업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동시 주최, 국립안동대학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79팀이 지원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1개 팀은 경진대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대회는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자, 카페창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학생 분야에서는 페넌트포인트 재활용 아이템의 웨이스투너지 팀이, 예비창업자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전거 사업의 가치올림 자전거 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창업자 분야 대상은 로봇 수직농장 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로웨이인이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300만 원 이내의 상금과 함께 2025년 안동형일자리사업단 창업기업 지원 사업 우선선발 자격이 주어진다.

카페창업 분야는 과수원 카페 콘셉트의 애플향 카페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인테리어와 장비가 완비된 안동형 전망카페를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행사장에 마련된 전문가 1:1 컨설팅과 네트워킹



존은 참가자들의 사업 아이디어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2022년 안동시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자인 ㈜천국박스 황상문 대표의 특강도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창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들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안동시는 앞으로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장에 마련된 전문가 1:1 컨설팅과 네트워킹 존은 참가자들의 사업 아이디어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2022년 안동시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자인 ㈜천국박스 황상문 대표의 특강도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창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송명주 기자

###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

11월 6일 위기 극복 방안 논의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 30분,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2024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영양군이 대한민국 지역 소멸 1순위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지역 생존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권윤동 기자



#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Jukbyeon Port  
Seafood Festival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

2024. 11. 8(금) ~ 11.10(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원



- 일시 : 2024. 11. 8(금) 제정(11:00~)
- 장소 : 죽변항 수산물축제 주무대

주최 | 울진군 주관 | 울진군경제발전위원회 후원 |